

서호인의 '소설처럼'



죽음을 잇는 이야기 -최진영 소설 '쓰게 될 것'

죽음은 언제나 가장 먼 이야기다. 생의 끝에서야만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죽음은 가장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당장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멀리 있던 가까이에 있던 죽음은 개인에게 가장 커다란 일이다. 죽음보다 거대한 사건은 있을 수 없다.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 그에게 남은 사건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이야기와 사건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가령 수해 복구 현장에서 갑작스레 수색으로 임무가 바뀐 군인이 제대로 된 안전 장비 없이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년은 자기에게 죽음은 당연하게도 너무나 이야기라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음은 그의 지적에 있었다. 죽음 이후 그에게는 이야기도 사건도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와 사건이 있다. 그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야기와 사건이 있다. 그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야기와 사건이 있다. 그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야기와 사건이 있다.

녀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쓰게 될 것'의 배경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 같기는 한데, 그곳에서는 전쟁이 한창이다. 우리는 가끔 하늘에 오몰이 담긴 풍선이 출몰하긴 하지만 전쟁 중은 아니기에, 이 소설은 허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소설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그것이 현실이 아님에 지극히 다행일 것 같다. 그곳에는 최소한 두 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아니라면 크고 작은 규모의 폭격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폭격이나 전쟁에 희생된 사람이 있고,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끝내 살아남아 무언가를 썼을 것이며, 그 소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쓰게 될 것'은 바로 그 다짐에 대한 이야기다. 진실로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용기와 신념으로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의 다짐.

'유진'에서 주인공 '나'는 확장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유진' 언니의 부고를 뒤늦게 듣는다. 이후로 며칠을 유진 언니를 생각한다. 유진 언니를 생각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그녀와의 사건을 반추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는 일과 다름 아니다. 스무 살 시절의 투박함, 어설피름, 비겁함, 애씀 등을 떠올린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본다. 자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나는 어른이라 할 수 있나? 어른은 무엇일까? 합부로 말하지 않고, 타인을 신경 쓰며, 자신을 지켜나가는 어

른..... 유진은 죽었지만 유진을 생각하는 나는 죽지 않고 살아, 조카와 대화를 하며 유진을 떠올린다. 그것은 곧 어른을 떠올린다는 말이다. 불완전하나 완전하고자 노력했던 한 인간을 떠올린다는 말이다.

'홈 스위트 홈'은 죽음의 예고를 받은 암 환자의 이야기다. 주인공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수술과 치료를 반복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시골에 집을 구하고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집을 뜯어고친다. 나는 죽음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는 미래를 기억한다고 말한다. 시간이 발산한다고 말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건만, 주인공은 죽음을 통과해버린 걸까?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까? 아니 주인공은 그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두고 갈 수 있어서 나는 정말 자유로울 거야. 사랑은 때로 무거워. 그건 나를 지치게 하지. 사랑은 나를 치사하게 만들고, 하찮게 만들고, 세상 가장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어.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에 나를 살아 있게 했어. 살고 싶게 했지. 나는 이곳에 그 마음을 두고 가볍게 떠날 거야." 소설은 가까이 온 죽음에게 사랑을 이어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그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최진영의 이야기는 발산할 것이다. 미래를 기록하면서.

<시인>

의료칼럼

여름철 선글라스, 선택 아닌 필수



박진우 보리안과병원 원장

각막에만 흡수되지만 눈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UV-A는 각막은 물론 수정체와 망막까지 침투한다.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UV-B는 99%, UV-A는 50% 이상 차단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파장이 각막·망막·수정체 등에 흡수되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세포를 손상해 광각막염, 백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안질환을 유발한다. 자외선에 눈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눈에 통증이 오는 광각막염은 각막과 결막에 입는 화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마치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과 같은 통증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며, 심각한 고통이 느껴진다.

눈 안의 앞부분에 있는 수정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노안과 백내장은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 질환이다. 하지만 외부 활동이 활발한 젊은 사람들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잦고 자외선이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노화를 앞당기고 수정체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혼탁하게 만들어 백내장 또한 앞당긴다.

3대 실명 원인 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은 눈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인 황반부에 변성이 생겨 발생한다. 주 증상으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시야 중심에 사라지지 않는 점이 보이고 심하게 진행된 경우 실명을 유발하지만 초기에 자가증상이 없고 시력감퇴를 느끼지 못해 중증에 이르러서야 내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평소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와 질환을 예방하

려면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햇빛이 강렬한 여름철에만 자외선을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에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지표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외출 시 선글라스 착용으로 눈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선글라스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선글라스 선택 시 자외선 차단 코팅 유무와 UVA, UVB를 차단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선글라스 렌즈 색이 짙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 렌즈 색상이 진할수록 눈부심이 감소하는 것 하지만 자외선 차단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시야가 어두워져 더 잘 보기 위해 동공이 확장돼 자외선이 더 많이 침투할 수 있어 눈동자가 들여다보일 정도인 75~80% 농도의 렌즈를 고르는 것이 좋다. 렌즈의 크기도 중요한데 렌즈는 되도록 크고 밀착된 것이 좋다.

선글라스의 평균 수명은 의외로 1~2년에 불과하다. 오래된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선글라스를 교체하는 것이 좋으니 너무 비싼 제품보다 믿을 수 있는 자외선 차단 렌즈를 합리적인 가격에 자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외출 시 우리가 잊지 않고 휴대전화를 챙기는 것처럼 집 밖을 나가기 전 선글라스를 챙기는 습관으로 자외선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기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발전의 전환점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가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없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재천명한 이유는 짐작건대 그 효과 때문이다.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지방의 위기를 비교적 가까운 시간 안에 가시적으로 해결할 대책이란 도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외에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와 관련 너무 자주 식언을 해왔다. 윤석열 정부도 정권 초기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호언장담해 왔으나 충분한 검토, 수도권 표시 등을 내세워 여태껏 미뤄왔다. 이렇듯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 수도권 편중 정책 기조가 혁신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내부의 사정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적합한 지 의문이다. 1차 이전기관 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혁신도시에서 결맞은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면 혁신도시 내부에도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과연 천명한 대로 역대 정부와는 다르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까? 추진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정부와 지역은 무엇을 해야 할까?

현 정부는 민주당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의 효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1차 이전의 부족함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이를 인식한다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수준은 1차 이전의 부족함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KBS, MBC, 한국은행 등도 이전대상에 포함할 수준을 기대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히 공식화해야 한다. 그다음 수도권 잔류기관의 선정기준과 이전기관의 지역별 배치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이어 이전 일정과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고, 이전기준을 선정하여 지역별 배정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2차 이전 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한 수정된 내용을 담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이전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수도권을 압도할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처럼 광주·전남에 결맞은 농협 등의 선도 기관 유치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2차 이전된 기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예정지구 확장 등 만반의 준비도 필요하다.

1차 이전 기관과 2차 이전 기관, 지자체, 지역사회는 이주해 올 임직원과 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전기관 스스로 혁신성장의 내재적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밝은 미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일치된 노력 위에서 열린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며, 지역이 이를 지렛대삼아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기업과 인재, 기술이 모여드는 혁신의 메카이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가 되기를 소망한다.

社說

민선8기, 남은 임기 청년과 상생발전에 집중

민선 8기가 벌써 반란점을 들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년간 열악한 재정,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 추진 등 지방소외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름 성과도 특출했지만 여전히 청년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의 진행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평가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남은 임기 동안 사도의 외연 확장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도가 함께 성장하는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건설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깬 지방이 잘사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민간·군통합 공항 이전을 통해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만들어, 인천 같은 공항경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시장은 또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광주·전남은 물론 영호남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다"면서 "광주 내부적으로는 다

양한 복합 문화시설 유치를 통해 고용을 대폭 확대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시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기자회견을 열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남이 우위에 있는 자원인 에너지·관광·농업업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의 풍부한 로컬컬처를 국제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세제인들을 끌어 모아 전남을 알리는 한편 남해안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광주와 전남은 무엇보다 상생발전의 모토 아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D급화재' 막을 안전 대책 세워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역대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히는 경기 화성 화재와 같은 사고가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D급 화재(급속 화재)'는 물론로 진화가 불가능해 초기 대피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옛그제 경기도 화성의 한 일차전지 공장에서 내부에 쌓여 있던 원통형 리튬 전지 3만 5000개가 연쇄폭발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 보관하던 리튬 전지는 휴대용 의료기기와 가전기기, 통신장비 등 일상에서 쉽게 쓰이는 배터리지만 불이 붙으면 폭발 위험이 높고 유독가스를 배출한다.

광주·전남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배터리 관련 화재(ESS·전기차·전기킴보드)는 165건에 달했다. 광주는 2021년 2건, 2022년 3건, 2023년 7건이었다. 전남은 ESS시설에서 총 8건이 발생했고 주로 전기차(139건)에서 화재가 났다.

리튬 배터리는 휴대전화, 노트북PC, 전기차 등 일상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번 화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광주·전남도 배터리 생산 업체를 갖고 있는 만큼 언제든 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문제는 갈수록 D급화재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에는 급속화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화재 위험성이 적다고 여겨 '일반화재물질'로 분류해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산단은 주거지역과 인접해 화재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D급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만큼 초기 대피시스템과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법에 D급화재를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감지기와 특수 소화장비 설치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동네책방 취재의 즐거움 중 하나는 책방지기에게서 인상적인 손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 중에서 칠순이 넘는 나이에 난생 처음 시를 쓰게 된 담양 한일철물점 할아버지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게 동네책방의 역할이구나 싶어서이다. 그가 시를 쓰게 된 건 철물점 앞에 문을 연 책방 '수북수북'을 방문한 덕이었다. 호기심에 책방을 찾은 그는 책방지기인 책을 읽고 시를 쓰게 됐다.

책방지기가 추천한 책은 '사랑인줄 알았는데 부정맥'. 제목에 서부터 위트가 느껴지는 책은 일반 노인들이 쓴

노년의시 쓰기

짧막한 시(선유) 모음집이다. 책은 일본 전국유료실버타운협회 주최로 매해 열리는 선유 공모전 수상작 88편이 실렸다.

"연상이/내 취향인데/ 이제 없어"라고 정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수도권을 압도할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처럼 광주·전남에 결맞은 농협 등의 선도 기관 유치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2차 이전된 기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예정지구 확장 등 만반의 준비도 필요하다.

1차 이전 기관과 2차 이전 기관, 지자체, 지역사회는 이주해 올 임직원과 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전기관 스스로 혁신성장의 내재적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밝은 미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일치된 노력 위에서 열린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며, 지역이 이를 지렛대삼아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기업과 인재, 기술이 모여드는 혁신의 메카이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가 되기를 소망한다.

작은 시 공모전 수상 작품집이다. 응모작은 무려 5800여 편에 달했고 이 중 수상작 12편을 포함해 100여편이 실렸다.

심사를 맡은 나태주 시인은 '작품 안에 많은 시간이 축적'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작인 '아내의 많은 손등/오곳이 쥐고 결었다/옛날엔 컴퍼스 커피/지금은 복사판 커피'('동행')이 딱 그런 작품이다.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따뜻한 거 한잔"('커피 주문')에선, 웃음이 터지고

"입종하시는 어머니 손 잡고, '엄마 곧 만나요' 하고선/하루에 꼭 챙기는 한 줌의 영양제"라는

글에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문방사우' 대신에 효자손, 리모컨, 진통제, 돋보기를 '노년사우(老年四友)'로 꼽고, "잘 노는 친구 잘 배우는 친구 다 좋지만/이제는 살아 있어 주는 사람이 최고구나"라고 노래하는 마음은 또 어땠까.

어쩌면 그들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하나의 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만 해도, 가슴을 울리는 한 편의 멋진 시가 탄생하는 것 이리라.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Include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header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